기업용 '모나체인', 금융·통신 등 비즈플랫폼 '새지평'

생활 속 블록체인

❷ LG CNS

멀티 디지털 화폐 플랫폼 활용
복수 디지털 상품권 등 서비스

기업용 블록체인 기술혁신 위해
글로벌 3각 공조체제 기반 마련

LG CNS 사옥 전경. /LG CNS

LG CNS는 지난해 5월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Monachain)'을 출시하고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성공사례 창출에 주력해왔다. 모나체인은 공공·금융·통신·제조 등 모든 산업 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커뮤니티 화폐부터 모바일 인증, 문서 인증, 공급망 관리까지 다양한 서비스

커뮤니티 화폐 서비스는 개인 휴대기기에 디지털 지갑을 생성하고, 이 지갑에 디지털 상품권을 제공한다. 공공영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청년수당, 양육수당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전통시장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LG CNS의 모나체인은 '멀티 디지털 화폐 플랫폼'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하나의 플랫폼이지만 이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위해 복수의 디지털 상품권 등을 서비스할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플랫폼 구축 없이도 지자체, 대학교 등과 연계를 통해 용도와 목적에 맞는 디지털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서비스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공유되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잘못된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걸러낼 수 있다.

'모바일 인증'을 통해서는 개인 휴대기기에서 개인식별번호(PIN)나 지문 등 생체정보만으로도 모바일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디지털 신분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허가형으로 운영되는 기업형 블록체인은 인증을 통해 참여자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증은 핵심이자 기본 기능이다.

'문서 인증'으로는 문서의 진본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종이문서 위주의 업무처리가 많은 현실을 감안했을 때 관리자 입장에서는 문서작성, 등록, 전송, 폐기 등 문서의 이력관리 과정을 위변조 없이 관리할 수 있다.

'공급망 관리'를 통해서는 제품 생산에서 고객 인도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거래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투명하고 신속하게 각 이해 관계자에게 공유된다.

◆블록체인 '글로벌 3각 공조체제' 확보

LG CNS는 지난 2015년부터 블록체인 사업의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 2015년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 기업의 전자증권을 발행했으며, 2017년 하반기에는 국내외의 총 20여 개 은행이 참여한 글로벌 자금이체 파일럿 프로젝트 '아전트'에 참여했다. 동시에 한국은행 금융망에서 이뤄지는 자금이체 업무 관련 모의테스트도 실시했다.

또 국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반 금융컨설팅을 통해 보험금 자동청구 영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가능성도 검증하는 등 실생활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LG CNS는 블록체인 관련 사내벤처도 운영하고 있다. 이 벤처는 기업용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플랫폼 및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글로벌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2017년 5월 말 국내 SI(시스템통합)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세계 최대 금융특화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R3'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어 지난해 7월 블록체인 글로벌 프로젝트 '하이퍼레저'에 가입했으며 올해 초에는 '이더리움 기업연합(EEA)'의 회원사가 됐다. 이로써 LG CNS는 기업용 블록체인 기술혁신을 위한 글로벌 3각 공조체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 올해 2월에는 모나체인을 기반으로 한 한국조폐공사의 블록체인 오픈플랫폼 구축을 마무리했다. 최근에는 국가주도로 진행하는 12대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과제 중 하나인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등 비즈니스 성공사례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G8 씽큐' 고객 안심보상 프로그램 운영

LG전자, 42종 대상 5월 말까지 신청

LG G8 씽큐(ThinQ). /LG전자

LG전자가 'LG G8 씽큐(ThinQ)'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LG 고객 안심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LG 고객 안심보상 프로그램은 고객이 LG전자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중고시세 이상의 보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LG G8 씽큐 보상 프로그램의 기간은 5월 말까지이고, 보상을 원하는 고객들은 안심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 기종은 총 42종이다. LG 스마트폰은 전원만 들어오면 구매 시기, 마모 정도, 기능이상 여부 등과 상관없이 각 모델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보상을, 타사 제품은 반납하는 제품 상태에 따라 책정되는 보상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재작년 출시된 LG G6를 반납하고 LG G8 씽큐를 구매하면 16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LG G8 씽큐의 출고가가 89만7600원임을 감안하면 고객은 약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는 셈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배터리 걱정 NO… 속도별 IoT기술 첫 선

LG U+, LTE-M1 전국망 서비스

모델이 LG유플러스의 'LTE-M1'의 전국망 서비스 개시 소식을 알리고 있다. /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5세대(5G) 이동통신과 소물인터넷(NB-IoT)을 더해 세 개의 사물인터넷 기술을 확보했다.

LG유플러스는 사물인터넷(IoT) 통신 'LTE-M1'의 전국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LTE-M1'은 고화질(HD)급 이미지, 동영상 등 중급 용량의 데이터를 빈번하게 전송하는 서비스에 적합한 IoT 기술이다. 전력 효율이 높아 다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더라도 수년 간 배터리 걱정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특히 블랙박스, 전기 자전거와 같이 이동형 단말 및 관제 서비스 영역에서 쓰일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기업용 IoT 요금제도 신설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요금제는 월 1100원(이하 부가세 포함)에 5메가바이트(MB)를 제공하는 'LPWA 110'와 월 2200원에 15MB를 제공하는 'LPWA 220'이다. 기존에 제공하던 'LPWA 33(월 330원, 100KB)'을 포함한 요금제 3종을 데이터 용량, 사용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안전기술 대거 적용… 가족나들이 안성맞춤

닛산코리아 '더 뉴 엑스트레일' 주목
안전성·주행성 강점 600만대 판매
레저활동 알맞은 넉넉한 공간 자랑

닛산 더 뉴 엑스트레일 주행모습.

지난 달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점유율이 또 한번 최고치를 기록하며 식지 않는열기를 입증했다.

22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3월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SUV가 차지한 비중은 45.1%로, 각각 42.6%와 44.1%를 기록했던 지난 1월과 2월 점유율에 이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함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아웃도어 레저 활동 등을 즐기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SUV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 같은 SUV 전성시대에 발맞춰 수입차 업계도 다양한 매력의 SUV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닛산코리아가 올해 초 출시한 '더 뉴 엑스트레일(이하 엑스트레일)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검증해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엑스트레일은 주행성과 안정성 등을 강점으로 600만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한 닛산의 글로벌 베스트셀링 SUV이다.

엑스트레일은 2.5L 직렬 4기통 DOHC 가솔린 엔진을 탑재, 최대출력 172마력 최대토크 24.2kg·m로 안정적이면서도 주행의 재미를 선사한다. 여기에 D-스텝 튜닝을 적용한 '엑스트로닉 무단변속기(CVT)'를 장착, 자동변속기처럼 엔진 회전수가 오르내리는 스텝식 변속 패턴을 느낄 수 있어 더욱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퍼포먼스를 제공한다.

주행의 재미를 완성시키는 것은 안전성이다. 엑스트레일은 닛산 인텔리전트 모빌리티 기반의 안전 기술을 대거 적용해 운전자에게 높은 신뢰감과 안전성을 준다. '인텔리전트 트래이스 컨트롤' 기능이 코너링 구간에서 각 바퀴에 걸리는 브레이크 압력을 조절해 코너링 시 최적의 경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4WD 트림에 탑재된 '인텔리전트 4×4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도로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전륜과 후륜간의 동력 균형을 조절하고, 도로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 및 적응하여 최적화된 드라이빙을 제공한다. '인테리전트 차선 이탈방지 시스템'은 차량이 차선에서 이탈하는 것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소리로 경보해주고, 이후 양쪽 브레이크를 작동해 운전자가 원하는 움직임을 차량이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도와준다.

역동적인 외관 디자인 및 실용적인 내부 인테리어도 눈길을 끄는 요소다. 엑스트레일 전면부의 날렵한 선과 후면부로 이어지는 곡선의 조화로 견고하고도 역동적인 외관을 완성했다. 닛산의 시그니처 요소인 V-모션 그릴과 부메랑 형태의 풀 LED 헤드램프 및 테일램프가 모던하면서도 날렵한 느낌을 주며, 크롬 사이드실 몰딩과 루프레일로 엑스트레일의 역동적인 모습을 한층 강화했다.

내부는 시트와 기어노브 등에 가죽 소재를 적용해 고급스러움과 세련미를 더했으며, D컷 스티어링 휠로 스포티한 감성도 놓치지 않았다.

또한 실용적인 편의 사양도 대거 적용해 상품성을 높였다. 엑스트레일은 동급대비 최장 휠베이스(2705㎜)로 넉넉한 실내공간 및 트렁크 공간을 자랑한다. 기본 트렁크 용량은 565 l 이고, 좌석을 모두 접을 경우 1996 l 까지 늘어난다. 4:2:4 비율로 조정할 수 있는 2열 뒷좌석은 슬라이딩·리클라이닝 기능과 4:2:4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엑스트레일은 3종 저공해 차량 인증을 획득하여, 친환경 차량을 위한 각종 할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부착 시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및 혼잡통행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할인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닛산 엑스트레일의 판매가격은 부가세 포함 2WD 스마트 3460만원, 4WD 3750만원, 4WD 테크 412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